

발간사

종교문제연구소가 설립된 지 8년이 되었고 『종교와 문화』도 이제 그 세 번째를 묶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 종교학 탐구의 지평을 개척하고 가꾸는 데 작지만 한 역할을 해 온 데 대해서 나름대로 소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3집에도 많은 귀중한 탐구의 과정과 결실이 담겼습니다. 우선, 지난 1995년부터 《현대사와 한국종교》를 대주제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기획 학술회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특집으로 담았습니다. 1996년 봄에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현대 한국종교와 평신도 운동>을 주제로 불교, 천주교, 개신기독교,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의 학자들이 각 종교의 평신도 운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에 열린 네 번째 회의의 주제는 <현대 한국 종교의 학문적 조명>으로, 기독교 신학과 불교학, 유학, 그리고 신종교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광복 이후에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각자 짊어진 길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짚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학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 학술회의 《현대사와 한국종교》의 마지막 순서로는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종교사학, 종교인류학, 종교사회학 등 종교학과 인접 제학문의 시각을 총동원하여 한국 현대사 속에서 여러 종교가 전개되어 온 양상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종합하는 기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지난 호들에서도 예고하였듯이 1997년 봄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시일을 늦추더라도 많은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반 여건이 마련되고 연구가 충분히 진척되는 대로 그 마무리 논의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양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복제 기술의 실험이 성공,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으로써 널리 주목받았고, 특히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자극하였습니다. 종교문제연구소에서는 마침 지난 9월에 미국 버클리에 소재한 연합신학대학원(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신학·자연과학 연구원>(Center for The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과 템플턴 재단(Templeton Foundation)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템플턴 강좌(Templeton Lecture)를 유치하여 종교

와 과학의 문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로버트 러셀(Robert J. Russell) 교수가 자연과학의 우주론과 신학의 문제에 관한 발표를 하기로 했고,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테드 피터스(Ted Peters) 교수가 복제에 관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어 주기로 했는데, 러셀 교수는 직전에 예기치 못한 질환을 얻어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그와 함께 연구 활동을 한 피터스 교수가 그의 논문과 생각을 훌륭하게 대변해 준 덕분에 그 아쉬움을 완전히 물어버리고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교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논평에 참여하셔서 깊은 통찰을 피력해 주신 서울대 물리학과와 장희익 교수님과 서강대 종교학과의 길희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수록한 두 발표 논문의 번역을 맡아 준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의 장대의 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문제연구소에서는 또한 지난 11월에 《종교와 종교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동 동안 학술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원로와 중견, 소장을 망라한, 그러나 오붓한 숫자의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마련한 연구의 결실을 나누면서 매우 깊은 논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드물고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논문을 발표해 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토론된 것을 반영하여 원고를 다시 다듬어 보내주셨고, 그 육고들을 모두 여기에 실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임에는 마침 올해 함께 회갑을 맞으신 정진홍, 황필호, 이은봉, 세 분 원로 종교학자들이 모두 참석하셔서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후학들은 한 자리에서 세 분의 회갑을 축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평생토록 보여준 치열한 학문의 역정 자체가 고스란히 후학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997년 12월 10일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금장태